

수능 언어문항 50개로 축소

수시 1학기 모집 2010학년도 폐지 교육부 2008학년도 대입기본전형 행정 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항 수를 현행 60개에서 50개로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또 수시 1학기 모집은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에 걸쳐 대입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중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10

학년도 이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수시 1학기 전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고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 등 7개 주요 사립대학들도 2008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기로 해 수시 1학기 실시 대학은 2008학년도부터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의 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2008학년도 수능시험일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15일 시행되고, 성적은 12월12일 통지된다. 정시 모집은 군별로 2007년 12월20일부터 원서접수가 이뤄지고, 등락은 2008년 2월4~5일 이틀간이다. 수시 1학기 원서접수는 2007년 7월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수시 2학기 원서접수 및 전형은 9월7일부터 12월11일까지 진행된다. /정성필기자 camus@

“고3 수험생 60% 목표대학·전공 이미 결정”

메가스터디, 온라인 설문

온라인교육업체 메가스터디(mw-w.megastudy.net)는 최근 전국 고교 3학년생 3만1천603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의 58%인 1만8천329명이 목표 대학과 전공을 모두 결정했다고 조사됐다.

“전공은 정했는데 대학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경우는 19%, ‘대학은 정했는데 전공은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1%로 나타났다. 이는 수험

생들이 대학보다 전공을 먼저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임을 뜻한다.

목표 대학과 전공 모두 결정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답자의 12%였다.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 43%로 가장 많았고 ‘성적’(25%)과 ‘졸업 후 진로’(23%), ‘사회적 인지도 및 인기’(6%), ‘주변의 권유’(1%) 등이 뒤를 이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한 집안 ‘부동산 싸움’ 진실은?

작은할머니-종손 위증 논란

최근 ‘부동산 소송’을 둘러싸고 70대 할머니와 40대 종손(從孫)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위증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K(여·74·광주시 서구 쌍촌동)씨가 경찰에서 종손인 C(42)씨의 사주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양심선언을 한데서 비롯됐다.

K할머니는 조카인 C(67)씨가 지난 2002년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493평의 대지와 관련해 J(43)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에서 “조카의 아들(종손)이 찾아와 ‘작은할머니가 우리의 의도대로 증언을 잘하면 소송에서 이겨 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K할머니는 당시 “이 땅은 시아버지(C씨, 작고)의 소유였고 이후

“종손이 시켜 거짓 증언”

“작은할머니가 부추겼다”

명의 이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C씨 사망 이후 등기는 모두 무효”라며 조카인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패소한 J씨는 할머니가 거짓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는 “시아버지의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종손의 말만 믿고 재판에서 승소하도록 거짓말을 했다”면서 “내 손으로 명의를 이전했고 재판에 불리할까봐 ‘진짜증의서’ 존재도 숨겼다”고 털어놨다.

할머니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남에게 뭇된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양심선언

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할머니의 진술에 따라 종손인 C씨에 대해 위증교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검은 “초범인데다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구속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C씨는 작은할머니가 어느 날 서류를 갖춰 놓고 땅을 되찾자고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7월 종손 할머니의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 위증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할머니는 “70 노인이 어떻게 위증 모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벌금도 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진실게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국토종단 통일대장정 '제7회 국토종단 통일대장정'에 나선 전국대학생기행연합(단장 이현경·이화여대 4년) 소속 대학생 500여명이 3일 함평에서 영광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목포를 출발한 학생들은 임진각까지 500km를 오는 17일 까지 행군한다. /함평=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신설학교 6곳 비품구입 비리

계약서와 구입용품 달라 교장 등 4명 경고·6명 주의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신설된 초·중학교 6곳을 상대로 교구 및 비품 구입 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10종 19제품의 각종 비품이 계약서와 다르게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4명은 경고, 6명은 주의 조치했다. 하지만 1개교는 감사 결과를 일부 부인함에 따라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 모 초등학교는 보건실 침대와 숙직실 이불장 등을 계약서보다 싼 것으로 구입했으며, 모 중학교는 교사 휴게실 침대와 교사용 실습대를 계약서보다 규격이 작은 것으로 구입했다. 또 두 곳의 학교에서는 일반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100만~200만원이 비싼 교장용 책상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에서 올해 신설된 학교는 도산·양지 초등학교, 일산·운리·신정·지산중학교 등 6곳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EBS교재 총판 선정 대가 EBS 팀장 수천만원 책거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EBS 교재 총판 선정 대가로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EBS 문화사업팀장 박모(47)씨를 구속하고 국장급 위원 김모(48), 교육출판팀 직원 홍모(35)씨 등 EBS 직원 2명과 총판·물류업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찜통 더위에 소나기 찜찜 8월 4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으나,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광주	구름조금	25~33℃
전남	구름조금	25~33℃
전북	구름조금	25~30℃
충남	구름조금	25~33℃
충북	구름조금	24~36℃
강원	구름조금	24~33℃
경북	구름조금	24~34℃
경남	구름조금	24~33℃
충청	구름조금	23~35℃
호남	구름조금	24~34℃
제주	구름조금	25~33℃
서울	구름조금	25~34℃
부산	구름조금	22~34℃
대구	구름조금	24~34℃
인천	구름조금	24~34℃
대전	구름조금	24~34℃
전주	구름조금	24~34℃
광주	구름조금	24~34℃
목포	구름조금	24~34℃
여수	구름조금	24~34℃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8:29 썰물 < 02:10
여수 밀물 < 03:21 썰물 < 09:41

▲해돋이 05:43 ▲해질 19:33 ▲달돋음 15:04 ▲달질 00:01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4/32	24/31	24/31	24/31	24/32	24/32

생활안내

교통안내	●가정법률상담소 남부지역법률상담소 671-4050 광주YWCA 527-0011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센터 021118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90-8114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가정폭력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여가문화재단 363-0155 광주 여성회관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도농공사 1588-2505	●국세청 국세청 1588-0060	●광주YMCA 광주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연대연구 369-9881	●광주노동대학에방센터 국번없이 1389
상담	●법무사회 법률상담(4월) 고광훈 239-1809	●법무사회 법률상담(4월) 고광훈 239-1809	●국번없이 1389

13년만에 햇빛 본 '전두환 캐딜락'

부경대서 복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시 타던 대통령 전용 리무진(사진)이 퇴역한 지 13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됐다.

부산 부경대 공대 기계공학부 자동차공학실험실에 보관 중인 1980년식 캐딜락 플리트우드 리무진 1대가 최근 출고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이 리무진은 1988년 당시 외교부로 넘겨져 국민 의전용으로 이용되다 1996년 소유권이 부경대로 넘어왔다.

배기량 6천cc인 이 차량은 출발 8초 후면 시속 100km에 도달하고, 최고 시속 250km까지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또 차의 유리창과 타이어, 보디에는 특수 방탄처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무진은 1996년 삼성자동차 박물관으로 팔려가기 직전 부경대측에 의해 인수돼 이 대학 자동차 공학도들의 해체 폐기 실습용으로 보관돼 왔다. /연합뉴스

경영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조대 평생교육원

문의전화 ☎ 222-2255, 011-611-9010

스피치 리더십 과정

신입생 모집 조대 평생교육원

문의전화 ☎ 222-2255, 011-611-9010

(株) 행복출발은

최신사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신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요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인연락처입니다.

대표이사 박은숙 (062) 527-3388

www.happystart.com